

광주시민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고혈압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금연 시도율·걷기 운동 실천율 낮아 완도 '과다 음주율' 전국 6번째 높아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고혈압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발표된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의사진단 유병률(평생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의 경우 고혈압이 인구 1천명당 139.6명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관절염은 75.6명, 고지혈증은 50.2명, 당뇨병은 48.4명 순이었다.

흡연의 경우 현재 흡연율은 21.2%, 평생흡연율은 33.3%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48.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 현재 흡연자 중에서 1개월 내에 금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6.7%에 그쳤다.

특히 금연캠페인 경험률은 광산구가 55.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나머지 광주시 4개구는 79~84%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광주시는 고위험 음주율이 46.1%로 전국 평균(45.8%)을 웃돌아 비교적 술을 많이 마시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생애 단 한번이라도 술을 마서 본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평생 음주율'은 광주가 79.7%로 전국 평균 76.1%를 웃돌았다.

또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14.8%였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는 36.0%로 조사됐다. 걷기운동 실천율(최근 1주일간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은 사람 수)의 경우 광주시 남구(63.1%)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62.1%), 광산구(46.4%), 북구(43.7%), 서구(42.9%) 순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51.7%, 암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6%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우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거나 양호했으나, 금연시도율과 걷기운동실천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 정도로 '골초'와 '술고래'가 전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완도군은 '고위험 음주율'이 전에서 가장 높았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소주 7잔(여자는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을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하는 데 완도군 성인의 61.7%가 여기에 포함됐다. 전국에서 6번째로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47.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어 고흥군과 무안군이 각각 53.8%로 전남지역 '주당(酒黨) 마을' 2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구례군(51.5%) ▲진도군(50%) ▲담양군(48.7%)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곡성군이 32.7%로 가장 낮은 음주율을 보였으며, 함평군(35.2%)과 화순군(36.4%)도 전남에서 비교적 낮은 '음주 마을'로 분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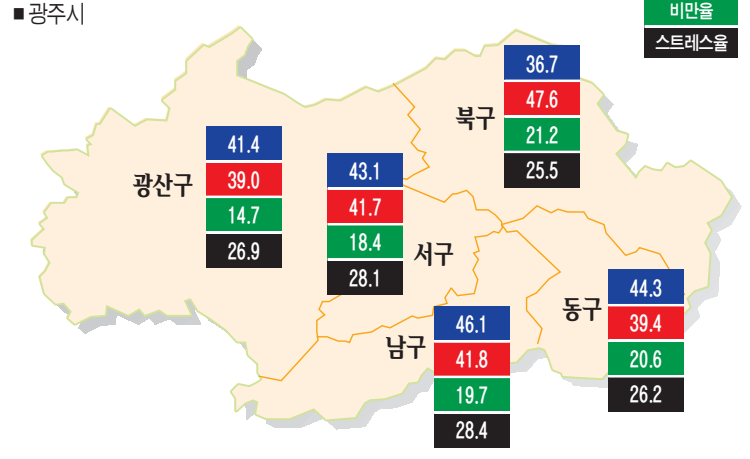
전남지역의 평균 남성 현재 흡연율은 43.5%로 전국 평균(45%)을 밑돌지만, 22개 시·군 중 절반 가량인 10개 시·군은 전국 평균(45%)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 흡연자 중 42%가 금연을 시도하는 등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연 캠페인 경험률도 여수시(90.7%)와 진도군(90.5%), 화순군(88.3%)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70% 이상의 경험률을 보였다. 반면 운동실천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의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 정도로 '골초'와 '술고래'가 전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완도군은 '고위험 음주율'이 전에서 가장 높았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소주 7잔(여자는 5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을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하는 데 완도군 성인의 61.7%가 여기에 포함됐다. 전국에서 6번째로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47.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항목별 비율



■광주시				■전남도					
지역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율	지역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율
광산구	41.4	39.0	14.7	26.9	강진군	37.5	44.7	20.8	18.8
북구	36.7	47.6	21.2	25.5	고흥군	30.0	53.8	22.1	17.4
서구	43.1	41.7	18.4	28.1	곡성군	41.1	32.7	18.0	16.4
남구	46.1	41.8	19.7	28.4	광양시	46.0	41.8	18.9	16.4
동구	44.3	39.4	20.6	26.2	구례군	39.3	51.5	19.6	25.7
					나주시	53.5	42.0	21.4	23.4
					담양군	48.6	48.7	19.4	23.5
					목포시	45.5	42.8	21.4	28.1
					무안군	35.1	53.8	21.2	15.7
					보성군	44.5	42.8	20.3	19.6
					순천시	44.1	44.9	17.0	22.1
					신안군	38.7	44.7	24.7	16.3
					여수시	34.6	43.5	17.8	22.0
					영광군	40.0	42.3	21.2	13.1
					영암군	46.4	45.7	16.8	20.7
					완도군	48.6	61.7	22.3	9.7
					장성군	38.8	41.0	23.1	25.6
					장흥군	47.9	47.1	21.6	20.1
					진도군	48.7	50.0	22.5	16.8
					함평군	46.7	35.2	19.4	18.0
					해남군	49.9	47.2	21.7	20.0
					화순군	52.1	36.4	21.0	30.1

(자료: 질병관리본부)

농협 개혁 물거품 되나

정부-국회 견해차에 정치권 갈등 법 개정 진통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작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큰데다 정치권 내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류시켰다.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이 농협법 개정을 농협의 신용(금융)-경제(유통)사업 분리 및 연계해야한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임위는 상당수 위원들이 지난 1천500억원 이상 규모 회원조합장의 비(非)상임화, 조합 선택권의 확대(음·면→시·도) 등의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였다. 조합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의원들이 조합장들의 불만에 귀 기울인 결과라는 관측이 나왔다.

농식품위는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최 의원의 문제 제기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 의원은 "신경 분리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농협에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라며 "따라서 신경 분리의 개략적인 윤곽이라도 제시돼야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신경 분리는 장기 과제로 돌려올 연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고, 지배구조를 먼저 개편하려고 박차를 가하던 농식품부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경 분리는 농협의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어서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율해야할 이해관계도 많다"며 "올 연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엔 신경 분리를 추진한다는 복안인데 이 시간표에 맞춰 농협 지배구조 개편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농협 개혁이 아예 좌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년엔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지역 조합장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의 기득권을 뺏는 개혁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농협법 개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과 민주당 등 야권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시 한 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4대 강 살리기'에 섬진강 포함을

전남도 정부에 건의...섬진강 살리기 3조4천억 투자계획 수립

전남도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섬진강이 포함된 '5대 강 살리기'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섬진강은 구례 등 도내 4개 시·군과 전북 5개 시·군, 경남 2개 군 등 3개 도의 11개 시·군을 경유하고 있고 212km의 연장과 4천912km의 유역면적을 지니고 있다.

전남도는 4대 강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를 지닌 섬진강을 정부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3조4천억 원 규모의 섬진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섬진강 살리기'는 재해예방과 수질보전, 경관개발 사업 위주로 총 3조4천36억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됐다.

전남도의 '섬진강 살리기' 사업은 상류의 경우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지로, 강 하류는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은 점을 이용한 해양복합 테마랜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하고 수질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우선하고, 전체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관광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구례군 토지면에 생태 한방요양원을 조성하고, 곡성군 오희면에 한옥형 탄소 제로 녹색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폭우로 인한 지리산 관광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피아골 휴양 단지 사업과 광양과 순천, 구례, 곡성 등 섬진강 유역에 12종의 경관림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섬진강 유역 숲가꾸기 사업은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다.

이밖에 ▲섬진강변 50km 꽃길 조성사업 ▲광덕지구 해양복합 테마랜드 ▲수중어류 관람대 ▲섬진강변 도로(95.6km·자전거 도로 포함)조성 등이 대개 포함됐다. 특히 섬진강 살리기 사업에는 보성강 개발 사업도 총 6개가 포함돼 있다. 보성강이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지방보강 사업과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등을 함께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섬진강이 지나가는 전북·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섬진강 살리기' 사업비가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작년 교육비 40조원 절반은 사교육비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7.5%...사교육비 8년만에 3배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대인 4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19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는 8년 만에 3배로 급증하면서 전체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또 물가상승으로 식료품 지출이 급증하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보전비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312억 원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 가구 수(1천667만 3천162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2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이다.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

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4천989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1년 5.7%, 2002년 5.8%, 2003년 6.4%, 2004년 6.8%, 2005년 6.9%, 2006년 7.1%, 2007년 7.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교육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최대한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차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0%로 크게 높아졌다.

연간 소비지출가 상승률(4.7%)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 원에 달한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사교육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대학등록금 등 공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학원이나 과외비 등이 포함된다. 학원 매출이 사교육비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개인교습비, 인터넷 강의비 등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하지만 학원이 매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교습비 등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2008. Year of the New SookMyung

숙명이 백락(伯樂)의 눈으로 당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재는 (천)나 천재는 (일)하는 바와 같은 사람은 드물다 라는 중국어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엔 천재가 많지만 그 천재를 알아볼 줄 아는 이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103년 역사의 숙명여자대학교는 100년 역사와 수백명의 인재로 전국 최고의 우수 인재로 추천 받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많은 인재로 일쓰고 있습니다. 이 천재들 오늘에 이어 대한민국 각지파 숲은 인재들을 죽임이 되었습니다. 수능으로 알 수 없는 잠재력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지만, 숙명이는 힘껏 가진 천재의 숨겨진 능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파워풀한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대가 호남지역의 핵심인재를 선발합니다
지역 리더와의 소중한 약속, 숙명여자대학교가 지켜가겠습니다

▶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전형유형	지역별 선의대	자기추천	인문사회계	경영사범	교육	전문계고졸합	글로벌서비스역사	총계
모집인원	254	20	20	22	44	24	30	370

호남 지역인재육성 선의대, 2010년 3월 30일 교육부공시자료에 의함